

# 한반도 언제든 강진 발생 가능성...최대 규모 7.0 추정도

## 올해 32건 지진 발생...전남 4건 지진발생 단층 알수 없어 더 불안

전북의 부안군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은 물론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지진의 강도나 발생 횟수가 현저히 적어 위험이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계에서는 한반도에 규모 7.0의 강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보면 2000~2022년 일본의 연평균 규모 5.0 이상 지진 횟수는 114.5회로, 0.3회에 그치는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은 디지털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을 제외한 '지진다운 지진'이 연평균 70.8회 발생한다. 한해 발생하는 지진 대부분은 규모가 2.0대에 머물며, 이번처럼 4.5가 넘는 강진은 매우 드물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32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지역은 4건으로 대부분 여수와 신안

등 해안에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발생 건수가 없었다. 또한 2023년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106건의 지진 가운데 전남은 14건이며 2022년에는 17건(전국 77건), 2021년 12건(70건), 2020년 13건(68건), 2019년 9건(88건)이었다. 전남지역의 지진 강도나 규모는 작았지만 발생 건수만 보면 매년 15~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타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978년부터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 지진은 이번까지 포함해 28번에 그친다.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발생한 경우는 13번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없었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강진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더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동쪽이 일본 쪽으로 끌려가면서 한반도가 과거보다 3cm 정도 넓어지고 지반이 약해져, 과거보다 지진이 빈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일대 응력 불균형이 생겨 지진이 급증했다가 현재는 다소 줄었지만, 응력이(지반) 깊은 곳으로 전이되면서 진원이 깊은 지진

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최대 규모를 '6.5~7.0'으로 본다.

규모 7.0 지진이면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했던 지진인 2016년 9월 경주 지진(규모 5.8)보다 위력이 63배 강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가 5.8에 달했다. 진원의 깊이는 15km였다. 경주 지진의 악몽이 채 잊히기도 전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진원은 7km로 더 얕아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감지됐다. 체감 위력 또한 경주 지진보다 더 컸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최대 규모가 7.0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규모 4.8 지진은 언제 어디서나 날 수 있는 수준이다.

더구나 그동안 규모 4.0 이상의 강진은 주로 경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전북 지역에서 4.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 갑작스레 강진이 발생한 것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지진 담당 주무관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무엇보다 지진을 일으킨 단층을 정확히 모르는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에 정보가 파악된 단층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안은 단층이 조사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상청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전남김대중재단 "남북 화해·협력 대화 절실...평화 지켜야"

### 지역 원로·활동가 70여명 '6·15공동선언' 24주년 앞두고 기자회견

우리나라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산기를 재개하는 등 남북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부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을 앞두고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경주 광

주전남김대중재단 공동대표, 김정일 6·15공동위 남측본부 상임대표,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 정찬웅 전 청와대인사수석 등 광주·전남 지역 원로와 시민사회 활동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는 전쟁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며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전쟁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다시 넘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돼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주 공동대표는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진 등 다양한 행동을 광주·전남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8·15 광복 이후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합의해 발표한 최초의 선언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20년 "지역소멸 극복 주춧돌 될 것"

### 장충모 사장, 100년 미래 비전 발표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2일 무안군 남도소리유희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공사는 100년 미래를 위해 수요 맞춤형 택지 개발, 미래형 전략산업 인프라 조성, 미래산업 융복합 도시개발 선도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며 전남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사는 이날 '도민과 함께 해온 20년, 함께 여는 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년간의 발전사를 돌아보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

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 등 외부 인사들과 공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공사는 누리공민 조성(28억원), 인재육성기금(1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10억원), 복지기금(5억원) 등 모두 58억원의 수익을 기부하기도 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난 2004년 6월 전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의 기틀을 쌓는 핵심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전남을 더욱 행복하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농식품부, 나주에 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준공

### 2028년까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나주시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헥타르:1ha는 1만㎡)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시범단지 조성에 나섰고, 사업비로 400억원을 투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준공식에서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위기를 겪는 농업계에서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 장관은 또 기념사를 통해 "다음 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새만금에 농기계 시험할 수 있는 100ha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등 18개국 '기술연합' 출범

### 우크라이나 재건 기술인력 교육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함께 교육하기로 했다.

독일 경제협력개발부는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개막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한국·독일·폴란드·일본 등 18개국과 유엔난민기구(UNHCR)·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국제기구, 구글·바이엘 등 기업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기술연합'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정부와 기구·기업이 7억유로(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앞으로 3년간 건설·운송·IT·의료 등 분야 인력 18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학교 주변 안전 스스로 지킨다"

### '광주 어린이 히어로즈' 발대식

광주지역 초등학교 58명이 놀이터와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로 변신한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안전신고요령,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위촉장 수여, 안전실천 선

서, 안전구조 제장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희망자를 모집하고, 10개 학교 58명의 어린이를 '안전히어로즈'로 선발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앞으로 2년 동안 놀이터·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관점에서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등 스스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취지를 담아 운영하게 됐다"면서 "어린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문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조사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및 권원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6월 12일 임시주주총회(주주서면결의)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1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 최정우 주식 9,000주를 감소하여 무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협회사법인 원도정우청해원 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군외면 완동1길63  
대표이사 최 정 우

---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빌딩**  
840㎡ 비약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 지분, 물건 바로 삽니다

010-9552-7900

##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

**光州日報** 지역안내

• 동 2095-1920 • 동 2096-1990 • 북광주 525-5761  
• 신 222-8171 • 남 신 571-1638 • 오 치 266-76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북 구 • 남 673-6836 • 동 광 222-4054 • 동 부 225-6001  
• 동 광 222-0054 • 동 광 222-8171

동 구 • 남 부 673-6836 • 북 광 651-1833 • 동 신 673-6836  
• 동 호 675-6605 • 신 월 671-7276

남 구 • 전 382-5788 • 남 광 372-2362 • 새광주 389-1625  
• 오 신 376-7153 • 치 광 376-4511 • 동 광 603-0311  
• 회 광 369-1625

서 구 • 동 남 952-1687 • 월 광 959-1920 • 청 단 973-2900  
• 동 남 955-0451 • 광 신 944-0444